

# 광주시 '영산강 Y프로젝트' 사업 본격 추진

**'걷고싶은 역사문화유산길' 조성  
신창동유적지에 마한 수로 재현  
올해 '호가정' 유산길 설계 마무리**

광주시가 영산강 Y프로젝트의 시작점인 신창동 유적부터 황룡강으로 이어진 호가정까지 '걷고 싶은 역사문화유산길'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창동유적지에는 2000년 전 마한의 옛 수로를 재현하고, 시 지정 문화유산인 호가정에 역사길을 조성하는 등 역사·문화·생태가 함께하는 시민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신창동 유적과 시 지정 문화유산인 호가정 일원 등 영산강Y벨트에 '걷고 싶은 역사문화유산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국비 1억원을 투입해 설계를 우선 추진하며, 신창동 유적 서쪽 구릉 경사면에서 시작해 저습지로 이어지는 500m 길이의 수로를 조성해 저습지 생태 복원을 추진한다. 수로는 옛 마한의 자연 배수로 형태로 재현될 계획이다.

광주시는 자연 배수로 설계를 위해 관련 문화재 전문가의 의견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철저한 고증을 거쳐 배수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신창동 사적 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마을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에 나섰고, 광산구와 협업을 통해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신창동 유적은 지난 1992년 9월 국가사적 제375호로 지정됐다. 월봉산 능선의 끝자락에 자리해 자연경관이 뛰어나며 초기 철기시대와 삼한시대의 생활상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발굴돼 역사문화 교육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다. 과거 영산강 범람으로 유입된 토사가 자연적으로 저습지로 형성돼 수천년이 지났음에도 문화유산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곳이다.

광주시는 또 국비 예산으로 '신창동 종합정비 연구용역'을 추진, 신창동 유적의 종합적인 복원 및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용역을 통해 신창동 유적의 흔적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과 역사공원 조성, 마한유적체험관 연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산강과 황룡강 합수부에 위치해 수변경관 조망이 우수한 '호가정' (시 지정 문화유산)에도 국토교통부 2023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9억원으로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5년 역사문화유산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호가정 주변 환경정비(둘레단 설치, 수목정비 등)와 인근 영산강과 황룡강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수변 산책로와 경관 정원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17일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이 어울리는 수변 산책로, 경관 정원 조성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지역 역사유산과 영산강 Y프로젝트의 시작점인 신창동 유적과 황룡강에 이어진 호가정까지 걷고 싶은 역사문화유산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inilbo.com

## 광주시, 지역 대표 맛집 50곳 선정

광주시는 맛의 고장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미식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 광주 맛집' 50곳을 선정, 발표했다.

15일 광주시는 맛집에 대한 시민 인지도 높이기 위해 기존 격년제로 선정하던 것을 올해부터 해마다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을 위해 평가위원 수를 3배 이상 늘리고 시민 온라인 평가방식을 도입했다.

맛집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 지정폐교부, 온오프라인 맛집 지도 제작,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지원하고, 식탁·조리장 등

시설을 개선하면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9회에 걸쳐 199곳의 광주맛집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광주 맛집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오는 5월부터 2025년 광주 맛집 선정을 위한 신청 및 추천을 받는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맛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지지 않은 맛집은 지속 발굴해 미식 관광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 광주시, CCTV 가상현실 체험관 새단장

광주시는 가상현실 공간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체험할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 가상현실(VR) 영상 체험관'을 새단장해 16일부터 운영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폐쇄회로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에 마련된 영상체험관은 기존 2층에서 1층으로 확장 이전했으며, 회선 사업자로 선정된 엘지유플러스(LGU+)의 투자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영상체험관은 8세 이상 초·중·고·대학생, 학부모, 기관·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종류와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상현실 교육과정은 가상현실 기기를 쓰고 가상현실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눌러 관제센터와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상현실을 통해 비상벨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시민이 긴급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무인정보단말기(Kiosk)를 운영한다. 무인정보단말기에는 물놀이 안전 및 지진 대피 수칙 등 영상을 볼 수 있다.

광주시는 폐쇄회로텔레비전 가상현실(VR) 영상체험관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재난이나 범죄로부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험은 평일 오전 10시, 오후 2, 4시 등 3회(회당 30분 내외) 진행된다. 체험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누리집(소통·참여·바로예약)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폐쇄회로통합관제센터(062-613-644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폐쇄회로통합관제센터 영상체험관은 2013년 10월 문을 연 뒤 1만3291명이 이용했으나, 코로나19로 축소 운영하다 중단됐다.

노병하 기자

## 전남도, 수도권서 전남산 조생 양파 홍보

전남도는 고품 거금도를 시작으로 조생양파 출하가 시작됨에 따라 전남농협, 거금도 농협과 함께 14일까지 수도권 판촉행사를 진행, 7톤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양파 재배면적 6079ha 중 조생종은 1239ha로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조생양파는 3월 하순께부터 제주도에서 출하가 시작돼 전남산은 4~5월 가장 많이 출하된다. 올해는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부진해 출하 시기가 늦어졌다.

이에 전남도는 조생양파 출하 시기에

맞춰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해 전남농협, 거금도 농협과 함께 농협하나로마트양재점에서 고품 거금도 조생 햇양파를 25% 할인된 가격으로 특판을 추진,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조생양파를 구매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며 "앞으로도 양파 수급 안정을 위해 선제적 소비 촉진대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보급을 통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광주대, 지역 청년 성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김동진 광주대학교 총장과 구문정 광주청년센터장이 15일 광주대에서 상호 인프라와 인적자원 연계 협력체계 구축, 청년정책 및 지원 사업 발굴 및 참여 활성화 등 지원지역 청년 성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대 제공**

## 전남도, 지속가능 식품 '블루푸드' 가치 확산 나선다

**수산물 가치창출 전략포럼 개최**

전남도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김산산업연합회와 함께 오는 25일 오후 2시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블루푸드를 전남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산물 가치창출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블루푸드는 수산물을 의미하는 씨푸드(Sea Food)를 넘어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해양생태계 보전, 건강에 좋은 영양 공급원으로 넓게 정의되고 있다.

포럼에선 '미래 블루푸드테크, 전남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역주도형 블루푸드 기술발굴 전략에 대해 오

연열 원장이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오철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의 '국내 수산부산물 가치와 활용 연구 사례', 이상민 ㈜대상 목포센터장의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 현황과 김 산업 미래', 하남출 서울대 교수의 '김 활성처리제 개발과 김 산업 발전방안'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하남출 교수의 주제발표는 김양식 어업인의 오랜 숙원인 김활성처리제 개발건으로 고수온기에 갯병 예방 효과가 있는 신제품 연구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방향을 담고 있어 김양식 어업인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합토론에서는 오연열 원장을 좌장으로, 박영채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 류지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사무관, 최경삼 김산산업연합회 본부장, 오철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책임연구원, 이상민 센터장, 하남출 교수가 참석해 '식량에서부터 산업원료까지, 블루푸드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박영채 과장은 "이번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재조명 받고 있는 블루푸드를 전남의 새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며 "관심있는 어업인과 관련 업계 전문가가 참석해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곽지혜 기자**

## 광주보건환경연구원, 10월까지 '오존경보제' 운영

**오존농도 실시간 관찰**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기온 상승과 일사량 증가로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10월15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운영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시민에게 신속히 알려 오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대기 중 오존 평균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 '경보', 0.5ppm 이상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오존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언론사, 학교 등 2620여개 기관과 대기질 경

보 문자서비스 신청자에게 팩스와 문자로 발령상황을 신속히 알려준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경보제 운영 기간 상황실을 운영해 11개 대기환경 측정소에서 측정된 오존 농도를 실시간 관찰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오존주의보는 2022년에 1일 발령됐으며, 2023년에는 발령되지 않았다.

오존은 자극적인 냄새와 산화력이 강한 오염물질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된다.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되면 사람의 눈과 코 등 감각기관을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

하므로 어린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는 광주시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종합상황실(062-613-7620)로 문의하면 된다.

서광엽 광주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오존은 미세먼지와 달리 마스크로 차단되지 않으므로 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과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